

KIA, 6연패 '쓴맛' 최용규로 '위안'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신예들로 라인업...한화와 연습경기 5-8 재역전 패 최용규, 3안타·득점·도루 활약...내일 히로시마전

KIA 타이거즈가 22일 오키나와 키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외의 경기에서 5-8 재역전패를 기록했다. 오키나와 캠프 6연패다.

야쿠르트를 시작으로 라쿠텐-니혼햄-요코하마-라쿠텐에게 모두 패했던 KIA는 국내 팀과의 첫 대결에서도 연패를 끊지 못했다. 연습경기는 연습경기지만 지는 과정이 좋지 못했다.

◇경험과 세밀함의 부족=한화는 이용규를 톱타자로 권용관 정범모, 김태균을 나란히 배치했다. 송광민과 최진행도 6-7번에 포진하는 등 노련한 선수들이 선발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KIA는 신예 선수들로 라인업을 짰다. 2루수 최용규 1루수 이인형으로 테이블 세타진을 구성했고, 신인 황대인(3루수)-이종환(우익수)-좌익수(서용주)가 클린업트리가 됐다. 황수현이 6번타자 겸 중견수, 최병연(우격수)-이흥구(포수)-백용환(지명타자)이 하위타순을 맡았다. 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나섰다.

라인업 무기는 떨어졌지만 한방은 KIA가 먼저 날렸다. 1-2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 황수현이 권혁을 상대로 좌전안타를 만들었고 최병연의 동점 2루타가 나왔다. 이흥구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3루에서는 백용환의 적시타와 최용규의 3루타, 신인 황대인의 1타점 2루타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5-2가 됐다. 하지만 6회 등판한 박상욱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6회 1사 1루에서 박노민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5-3, 7회에는 김태균을 선두타자 볼넷으로 내보낸 뒤 3연속 안타를 맞으며 흔들렸다. 밀어내기 볼넷과 폭투까지 나왔다. 경험부족의 야수진들은 한화의 추격에 다급한 모습을 보이며 중계 플레이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범호, 김주찬, 나지완, 심동섭 등 주축 선수들이 덕아웃에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KIA는 신예 선수들에게 경기를 마무리 하도록 했다.

◇임준혁의 순항과 최용규의 재발견=선발 경

쟁을 벌이고 있는 선발 임준혁은 두 번째 등판도 관망하게 소화했다. 1회 연속 안타로 점수를 내주는 했지만 4이닝을 1실점으로 지켰다. 6개의 피안타가 있었지만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2km.

임준혁은 “공격적인 피칭을 하자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고 구위와 변화구 등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다만 4회 힘이 떨어지면서 연속해서 볼넷을 내준 것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타석에서는 예비역 최용규가 눈에 띄었다. 2루 경쟁에서 한발 앞서있는 최용규는 3루타 포함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타석에서는 끈질긴 승부로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를 만들어 냈고, 도루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 공·수·주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2010년 시즌을 끝으로 군입대 등으로 4년의 공백이 있었던 최용규에게는 절실한 기회. 연습경기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 선점을 한 모양새다.

5연패 뒤, 지난 시즌 최하위 싸움을 했던 한화의 대결이었던 만큼 관심 많았던 경기였지만 일단 경기는 패배로 끝났다. KIA는 3연패를 당한 뒤 경기 후 미팅을 생각하고 있다. 괜한 잔소리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코칭 스태프의 배려다. 그러나 연패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부담감은 커졌다.

KIA는 23일 휴식기를 보낸 뒤 24일 히로시마와 7번째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

마운드 '전진' 위한 '후퇴'

투수 서재응·한승혁 부상에 조기 귀국...함평서 심기일전

KIA가 차분한 '부상관리'로 단단하게 마운드를 다진다.

재활조가 머물고 있는 함평 웰린저스 필드의 멤버가 늘었다. 곧 재할 캠프를 끝내고 대만으로 이동을 했던 투수 서재응이 먼저 함평으로 돌아왔다. 23일에는 '총알투' 한승혁이 오키나와 캠프에서 짐을 싣는다. 서재응은 햄스트링, 한승혁은 옆구리가 좋지 않다. 캠프 완주를 하지 못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다. 무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내려진 조치다.

긴 안목에서 결정된 상황이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특히 켈소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한승혁의 중도 이탈은 팀과 개인에게도 아쉽다. 한승혁은 지난 10일 흥백전에서 두 번째 등판에 나서 바로 149km를 찍었다. 고질적인 문제도 언급했던 제구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옆구리 통증이 찾아오면서 한승혁의 시즌 준비에 제동이 걸렸다.

캐치볼과 간단한 피칭 등을 소화하고 있지만

경기 등판은 어려운 상황이다. 캠프가 연습경기 일정으로 전환된 만큼 무리해서 캠프 선수단과 속도를 맞추기보다는 함평에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즌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회복세 속에 구위도 나쁘지 않은 만큼 고민은 있었지만 둘다라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한승혁의 귀국이 결정됐다. KIA는 한승혁의 피칭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는 대로 다시 선수단에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야수진에서도 이동이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내야 경쟁을 했던 2년차 박찬호가 최근 대만 2군 캠프로 이동했다. 수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힘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또 출전 기회가 한정된 1군 캠프보다는 2군 캠프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도록 하기 위한 계산에서 이동이 결정됐다.

부상으로 오키나와 캠프에서 중도 귀국했던 내야수 윤완주도 얼마 전 대만 캠프에 합류해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해에도 "GO~"

리디아 고, LPGA 호주오픈 우승 한국계, 시즌 3개 대회 싹쓸이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화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2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22일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파73, 675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2언더파 7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단독 2위 양희영(26)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8만 달러(약 2억원)다.

시즌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리디아 고는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3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다시 전했다.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2년과 2013년에 캐나다오픈을 2년 연속 제패했고 LPGA 투어 신인인턴 지난 시즌에 3승을 거둬 이번이 투어 통산 6승째다.

올해 앞서 열린 두 차례 LPGA 투어 대회에서 최나연(28·SK텔레콤)과 김세영(22·미래에셋)이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교포 선수인 리디아 고가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계) 선수들의 강세가 계속됐다.

10위권 안에 한국 국적의 선수가 5명이 이름을 올렸고 교포 선수까지 더하면 공동 7위까지 11명 가운데 7명이 한국 또는 교포 선수였다. /연합뉴스

기성용 "아이가 생겼어요"...5호골로 '자축'



첫범 세리머니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홈 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전반 30분 동점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스완지시티는 2-1 승리를 거두었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맨유와 두 차례 만나 모두 골을 터뜨려 '맨유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맨유전서 동점골...EPL 한국선수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5호 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30분 동점골에 성공했다.

전반 28분 맨유의 안데르 에레라에게 먼저 실

점한 스완지시티는 전반 30분 왼쪽 측면에서 존 조 셀비가 올려준 크로스를 기성용이 골 지역 정면에서 왼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놓는 제치있는 슈트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지난 8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넣은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한 기성용은 한국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웠다.

기성용에 앞서 박지성이 2006-2007시즌과 2010-2011시즌 두 차례 정규리그 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바 있다. 정규리그에서 5골을 넣어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을 작성한 기성용은 지난해 8월 시즌 개막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은 데 이어 이날 또다시 득점을 올려 맨유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28분 바페팀비 고미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지난해 8월 시즌 개막전에서도 맨유를 2-1로 물리친 스완지시티

는 이번 시즌 맨유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뒀다.

기성용은 후반 3분에도 맨유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오른발로 공을 밀어 넣으려 했으나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에 가로막혔다.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윤석영(25)은 힐티외의 원정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지만 팀은 1-2로 졌다. 크리스티얼 팰리스의 이청용(27)은 아스널과의 홈 경기 출전 선수 명단에 들지 못했다.

/연합뉴스